

농어촌공사 장성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✎ 김육봉(=호남) 기자 | ☎ 승인 2025.02.26 16:53



[사진 제공=농어촌공사]

[폴리뉴스 김육봉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오는 26일,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과 함께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

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및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지원을 받아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한 청년 농업인은 “농지은행 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”라고 말했다.

장성지사는 농지은행의 「맞춤형농지지원사업」 및 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을 통해 지난해 53농가에 37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윤영일 지사장은 “장성군의 미래라고도 표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이 향후 전업농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”라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청년농업인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김육봉(=호남) 기자 news1@polinews.co.kr